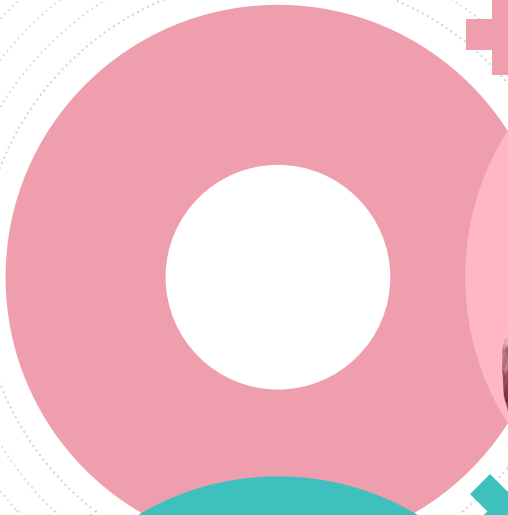


마을에서 — 만났사오

WE MET IN THE VILLAGE



마을에서 — 민천사의

Contents

1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 마을공동체란 05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과정 돌아보기 08

2 마을살이 이야기

- 1)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12
 - 공동체모임활성화 40
 - 마을특화활동지원 61
- 2) 이야기를 엮은 사람들
 - 마을지원활동가 76
 - 강북 마을기재단 77

3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 2023년 강북구마을공동체 80
- 2022년 강북구마을공동체 82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 마을공동체란
- 202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과정 돌아보기

1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소개

강북구마을자치센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01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웃들과 연대하며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과 호혜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02

마을의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를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마을활동 경험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여 다른 주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3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동력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합니다.

모임을 넘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이웃이 모여 **다양한 마을살이**를 꿈꿉니다.

· 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모임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춘 상담, 컨설팅
- ▶ 사업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 선정자OT, 월간정산, 사업지기 매뉴얼 제작 등

·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발, 운영합니다.

- ▶ 강북구 마을자치학교
 - 상상과 실천과정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입문 교육
 - 성장과 변화과정 : 주민리더를 위한 조직운영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 연결과 도약과정 : 마을·자치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 가치 습득

· 동·의제 마을넷지원

동·권역별 모임을 통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동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의제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 누구나 대화모임 - 주민 누구나 모임의 장을 여는 것을 지원
- ▶ 의제 공론장 - 포럼, 축제, 장터 등 주민 필요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교류

· 홍보

센터 및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동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마을소식 '복새통' 제작 및 발송
- ▶ 홈페이지 www.gbmaja.org 운영
- ▶ 카카오톡 채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필요와 문제를 나누며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입니다.

※ 지역의 관계망 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유형

| | |
|----------|--|
| 이웃 만들기 | 소규모 주민모임을 통한 이웃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
| 공동체모임활성화 | 이웃관계망을 기반으로 모임구성원들의 관심 의제를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시도해보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
| 마을특화활동지원 | 공동체 공간·골목을 연계하거나 의제 중심의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을 통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합니다. |

※ 공모사업의 유형은 해당년도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상담**으로 더 쉽게 시작하세요!

※ 새로운 주민모임 형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기획과 실행,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마을지원활동가가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방법

| 찾아가는 마을상담과 컨설팅 | 카카오톡 채널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전반(개념, 사례)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서류 작성방법 ▶ 우리동네 마을살이에 필요한 정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구 마을공동체 1:1상담 ▶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 알림 ▶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동네 소식 등 |

✦ 202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과정 돌아보기

사업공고



사업공고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 ▶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사전상담 및 실행계획서 상담

- ▶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 심사의견 반영 및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계획서 상담 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설명회

- ▶ 공모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지원자격, 사업비 집행지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안내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집」 배포



심사 및 선정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 ▶ 공모사업 접수 시작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 ▶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
- ▶ 사업비 집행지침·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 선정 모임 간 네트워크 진행
- ▶ 사업지기 매뉴얼 「마을씨 가이드북」 배포



중간모니터링

- ▶ 사업 진행 현황 공유, 사업지기 애로사항 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및 회계 모니터링



평가컨설팅

- ▶ 사업마무리 지원 및 모임 지속가능성 컨설팅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서류 제출 안내

맞춤형 회계교육



사업지기 회계교육

- ▶ 지출결의서 등록 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원천세 납부 및 신고 등 안내를 위한 사업지기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 ▶ 「증빙서류 샘플북」 배포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제출
- ▶ 마을지원활동가 1:1 회계컨설팅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발간

- ▶ 마을지원활동가와 마을기자단이 취재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기사 및 마을공동체 성과자료를 엮은 책자
- ▶ 「마을에서 만난 사이」 발간



사업지기 성과한마당

- ▶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지기 성과한마당' 개최
- ▶ 마을공동체 우수 활동 사례 소개 및 모임 간 네트워크

성과공유







마을살이 이야기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야기를 엮은 사람들

2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Again 수유재 : 사람, 마음을 품은 우리 마을!



삿밥 두비두밥~

김유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우이동

재미난학교(대안교육기관) 학부모 모임으로 영화감상, 마을밥상, 책모임 등의 활동으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수경
김영호
원녹견

왠지 크고 망울망울한 눈을 갖고, 머리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뿔도 있을 듯한 장난꾸러기 같은 이름이다. 삿밥 두비두밥은 Again 수유재의 야심찬, 첫 번째 사업명이다. 요것저것 어우러져 말도 못하게 맛있는 맛 이 사람들의 왠지 웃음과 버무려져서 소리만으로도 행복하고 신났을 것 같다. 누구의 아이디어 일 까? 소리도 모양도 분위기도 맛까지도 그려지는 재밌는 밥상모임은.

함께 모여 삶도 나누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이 사업은 이웃만들기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열렸다. 왠지 지킬만한 웃음을 날리며 재미난 마을 밥상을 나누었다. 많은 인원이 신나게 재밌게 푹푹 뭉쳤다.

‘Again 수유재’는 삼각산 재미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모임에서 출발한 ‘수유재’를 이어가는 의미로 탄생하였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교에 다시 활력을 주고, 마을과 사람들을 넘나들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야기도 듣고 일상도 회복하고자 이웃만들기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삿밥 두비두밥으로 시작된 모임이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영향으로 삼각산재미난 학교의 다양한 모임들도 힘을 얻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님과 함께하는 축구 모임은 우리끼리 하는 축구에서 그치지 않고 경기장을 빌려 다른 대안학교와 축구시합을 갖기도 했다. 시합을 위해 운동하고 깃발도 만들고 유니폼도 맞추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힘을 얻었다. 또, 두발로 만나는 세상을 통해 자전거를 같이 타기도 하였다. 서서히 지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도 하고 더위도 느껴 보았다.

어른들이 모여 동화책과 청소년 책을 읽어보고 내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를 상상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책모임도 진행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책모임은 반응이 좋아 신규 회원이 첫 모임부터 4명이나 모였고 ‘나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어린이들의 책을 읽어나가고 이야기한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들이 만나는 동화 속 세계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나 역시 반딧불이, 동그란 눈망울, 기대에 찬 마지막 페이지를 침을 꿀떡거리며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방 꾸미기도 기획하고 있다.

이전에 책방에 갔을 때, 2층 다락방을 조그마하게 꾸며 놓고 어린이들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 무척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방을 Again 수유재에서 만든다고 하니, 이전에 어린이를 향해 느꼈던 부러움에 작은 복수라도 하는 듯, 내심 기분이 좋았다.

영화를 함께 보는 ‘#영화#마을#살이’의 준말인 ‘영마살’은 보고 싶은 영화를 정해 감상하고 소감도 나누는 모임이다. 선정했던 영화의 주제가 폭넓어 내년에는 드라마를 보고 가벼운 수다를 떨며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어볼까 구상 중이다. 음악회를 열 계획도 하고 있다. 하이그라운드를 빌려서 티켓 판매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야기 꽃도 피우고, 작은 음악회의 선율이 잔잔하고도 왁자하게 그려진다.

Again 수유재는 마을에서 모임을 같이 기획하고, 마을과 이웃의 브릿지 역할을 하며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마을에서 사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웅성거렸으면 좋겠다는 꿈을 그리며.

마을에서 이웃과 이웃이 만나게 된다면 뭐라도 하고 뭐라도 되지 않을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을 위로하는 웃음과 행복과 이웃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웃만들기 활동이 자극제가 되어 1박2일 워크숍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웃만들기 활동은 영향력이 있었다. Again 수유재 모임이 이웃만들기 활동을 통해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마을주민들과 나누고자 한 기대가 우이동 전체로 넓게 깊게 높게 울리기를 기대한다.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다원모꼬지



동네에서 취미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요!

조상은 | 2023 강북 마을기재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번2동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과 소소한 즐거움과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생활의 활력을 갖고자 합니다.

안영아
한혜림
홍미선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맑은 날, 모임을 하고 있는 다원모꼬지 팀의 대표제안자 안영아님과 팀원들을 만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상은: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안영아: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며 학부모로 만나 친하게 지내던 세 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다원’에 ‘모임’이라는 뜻의 ‘모꼬지’를 합쳐 이름을 지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며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재능 기부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함께 배워가는 친목 모임입니다. 뜨개와 라탄으로 수세미, 지갑, 가방, 니트도 만들었고 앞으로 목공예 체험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상은: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영아: 처음엔 세 명이 주로 모였어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이 모임을 좀 더 넓혀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다가 강북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나씩 늘려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모임을 만든거죠.

조상은: 모임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안영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7명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료대관하는 모임 공간을 열심히 찾아서 그 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모임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영아: 자부담을 모으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씩 팔려 나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힘들게 만든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번2동에 있는 '하늘숲속 마을활력소'에 판매를 부탁드렸는데 노래교실 오신 어머님들이 보시고 예쁘다고 많이 사가셨습니다.

조상은: 마을안에서 다원모꼬지는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안영아: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모임이 되고 싶어요. 마을 안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들이 온다면 더 좋겠어요.

조상은: 다원모꼬지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안영아: 이웃만들기 모임을 하면서 재능기부로 가르치고 배우다보니 서로 보람도 느끼고 힐링도 됩니다. 마을공동체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게 됩니다. 마을 안에서 함께 도와가며 엄마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씩 늘리며 행복하자는게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다원모꼬지 팀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나서 직접 만든 작품들을 보니 정성이 엄청 들어가서 그런지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중 니트로 만든 예쁜 나사가 눈에 띄어 입어보셨냐고 했더니 아동용으로 만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다.

자부담 마련을 위해 만든 카드지갑은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널리 판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란도란, 한땀 한땀 만들며 유쾌하게 모임을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지속적인 모임을 응원하며 앞으로 만들어 낼 작품들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 해 본다.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북한산 식물도감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북한산 식물도감’

조상은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인수동

‘북한산 식물도감’을 통해 마을의 식물생태자원을 알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서로에게 다정한 내적 지지자가 되고자 합니다.

김경복
김도형
신명희

뜨거운 여름 더위도 잊고 북한산의 자연과 더불어 같은 취미를 즐기고 동네 친구를 만들어 다정한 이웃을 만나는 북한산 식물도감 모임의 김경복님을 만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상은: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김경복: 북한산 식물도감은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다니면서 둘레길에 있는 식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관찰하고 그림도 그립니다.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캘리그라피로 표현하기도 하죠. 북한산의 둘레길 식물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는 모임입니다.



조상은: 북한산 식물도감이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경복: 처음에는 두 세명이 산책을 하다가 둘레길이 너무 좋고 예쁘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던 이웃이 주변에 다양하게 모임을 소개하면서 인원이 늘어나 '이웃만들기 사업'의 이름처럼 정말로 이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상은: 모임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김경복: 날이 너무 좋아서 번개모임으로 4.19탑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러 회원 분들이 금방 모이셨어요. 동네에 사니 그게 좋은 점이에요. 카메라도 들고 오셔서 같이 둘레길을 걸었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무슨 꽃이야, 서로 대화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요.
처음 함께 걸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는 '강북마을텃밭'에 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회원들과 처음 가 보게 되었는데 텃밭의 풍경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조상은: 마을 안에서 북한산 식물도감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김경복: 그림 그리고 캘리그래피를 하고 사진 찍는 활동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 모임구성원들과 가까운 동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마을에서 하는 일에 함께 가서 동네 사람으로 참여하고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상은: 북한산 식물도감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김경복: 이 동네에 살기는 했지만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만 했었는데 모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가게가 보이면 들어가 보게 되고 물건도 우리 동네에서 사게 되었어요. 북한산 식물도감을 통해 동네 사람으로서 동네를 좋아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답니다.

조상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요?

김경복: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작업들의 성과물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소박한 전시회를 열어서 그것들을 보고 관심 있는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시할 곳을 찾고 있어요. 카페나 자활서점 등을 알아보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 날 만나 본 북한산 식물도감 팀.

같이 북한산을 걸으면서 식물과 나무를 보고 이야기 나누며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캘리그라피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전문가 못지 않은 열정이 느껴졌다. 그림 실력도 다들 너무 좋아 놀라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을 통해 함께 같은 취미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배움의 동료로 다정한 이웃을 만들어 가는 북한산 식물도감 모임을 보며 우리 동네에도 이런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전시회가 열리면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전시회를 통해 더 많고 좋은 이웃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정한 북한산 식물도감의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응원한다.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선·이·모 : 세대공감 5.7(5070)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 '선·이·모'

오영숙 | 2023 강북 마을기재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삼양동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자 합니다. 원목 트레이, 디퓨저,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과 어르신께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조옥순
신금옥
이재훈

덥고 습한 날씨에 지쳐 여유를 찾지 못하는 요즘, 잠깐 스쳐 가는 바람 사이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친구삼아 즐거운 마음으로 선·이·모 모임 리더인 조옥순님을 만났다.

오영숙: 자기소개와 선·이·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옥순: 안녕하세요, 선·이·모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조옥순입니다. '선·이·모'는 '선한 이웃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선·이·모는 이웃들과 교감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의지하며,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이웃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영숙: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조옥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직책을 분배하고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여덟 분이 활동하시고 저를 비롯해 실무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역할 분담 없이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품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기부하는데 앞장서는 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숙: 선·아·모 활동을 시작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생각으로 모임을 이어가시는지요?

조옥순: 특별한 동기보단 나눔의 대상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보면 엄마의 마음에서 늘 안타까웠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엔 한 단체에 가입하여 청소년 밥상인 '애들아 같이 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같이 먹는 밥 한 끼로는 청소년들의 가려진 마음과 닫힌 생각을 걸음으로 꺼내어 치유하기엔 턱없이 작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관심과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없는게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청소년과의 나눔 활동은 중지할 수 밖에 없었어요.

다시 시작한 활동은 삼양동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장소를 제공 받았고, '가치 모임(가꾸고 치유한다 or 같이한다)'이란 공동체 활동을 재능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영숙: 선·아·모에서 진행했던 활동이나 계획한 활동이 있다면?

조옥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퓨저 만들기와 친환경세제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남은 활동으로 압화(누름꽃) 만들기를 하며 재능기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오영숙: 모임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조옥순: 첫째로는 나눔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조건 다가서는 것도, 사랑으로만 감싸 주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연령과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융화시켜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고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봉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려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장사를 했거든요. 팔죽, 전복죽 등 주부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 자금을 만들고 비축해서 나눔을 함께 하는 데 사용했어요. 힘든 과정보단 나눔을 실천하고 나서의 뿌듯함이 더 큼니다. 이 뿌듯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실 거란 생각도 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영숙: 선·아·모에서 활동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조옥순: 특별히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눔 봉사를 경험하고 실천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고요, 힘들고 외로운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봉사를 통해 하나 되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영숙: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조옥순: 따로 계획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우리들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업에 지쳐있고 외부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파랑새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받아, 외롭고 지쳐있는 주변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선한 이웃들의 모임 선·아·모. 선·아·모를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올랐다. 가을하늘, 가을바람, 가을향기가 샬레임으로 다가온다. 건강한 가을의 풍요로움도 나눔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슬기로운 보드생활



웃음 꽃 피우는 보드생활, 마을살이

이다현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인수동

보드게임 자격증을 취득한 엄마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소통하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보드게임을 나누며 엄마들도 성장하고자 합니다.

박미나
정은교
박현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슬기로운 보드생활’의 대표제안자 박미나 님을 만났다. 방금 수업을 다녀왔는지 커다란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다. 보드게임이 좋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드게임 활동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늘리고 있는 박미나 님.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다현: ‘슬기로운 보드생활’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박미나: ‘슬기로운 보드생활’은 보드게임을 매개로 엄마와 아이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활동하고자 만든 모임이에요. 저희 마을에 곧 주민복합시설이 생겨요. 그 시설 안에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다현: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미나: 마을에서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엄마들이 모여 보드게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어떤 자격 증이든 취득하고 나면 공부가 끝나는데요, 거기서 멈추면 그동안 배운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자격증 취득 후에도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다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박미나: 우리가 '보드게임'을 떠올리면 아이들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학습과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마을의 엄마들을 모집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느린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을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 아이들은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마을의 청소년 시설인 '도깨비 학교'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그곳에서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함께 활동할 공간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던 중 수유1동의 공원에서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움청카)'에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이다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박미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보드게임은 의외로 성인들도 좋아하세요. 제가 활동하는 교육공동체 단톡방이 있는데, 모임 공고를 하면 성인들이 더 많이 참석합니다. 어떤 분은 2~3년 후에 귀농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다현: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드게임 활동가가 되셨는데, 소감은 어떤가요?

박미나: 올해 처음 돌봄교실 수업을 나갔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게 됐지만요. 힘들지만 이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마을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제가 받은 것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다현: 보드게임 활동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박미나: 보드게임 활동가 모임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늙지 않아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드게임에 진심이고요. 게임을 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현: 마을에서 ‘슬기로운 보드생활’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박미나: 공모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모임을 유지하고 싶어요. ‘움청카’(움직이는 청소년 카페)도 올 10월까지 계획을 잡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다현: ‘슬기로운 보드생활’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박미나: 사실 보드게임을 필요에 의해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마을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골목 축제도 준비할 수 있고요. 마을에서 우리가 나눌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다현: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시구요, 이 인터뷰를 보고 보드게임 활동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미나: 아직 사업이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 활동가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처음부터 보드게임 자격증을 따기 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선 모임을 만들기를 추천해요. 보드게임에 관련된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셔도 좋고요.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차분하고, 어떤 분은 활력 있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보드게임을 적용한다면 훌륭한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나 님이 살고 있는 인수동 ‘어진이마을’은 크고 작은 마을 행사를 자주 연다. 그만큼 마을공동체가 튼튼하다는 증거다. 보드게임을 매개로 마을 주민들과 슬기로운 마을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녀. 그녀의 열정만큼 ‘슬기로운 보드생활’은 어진이마을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벌써 뽀얀 잔뿌리들이 땅을 비집기 시작했으니까.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쓱-쓱 : 은둔 고립 청년들의 골목 플로깅 사업



삼양동 청년들이 마음을 여는 소리 '쓱쓱~쓱쓱~'

박미나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삼양동

강북구 고립 청년들의 고립이 해소되고 이웃 간 교류의 시작이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전하림
유승규
차영현

오늘은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공유오피스 한편에 자리한 '안무서운회사' 사무실로 향했다. 바로 쓱쓱의 대표제안자 전하림 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쓱쓱은 이름처럼 동네를 쓱쓱쓱쓱 청소하자는 의미로 은둔청년들이 플로깅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은둔청년들에게 할 일을 만들어 은둔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돕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공모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미나: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하림: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다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정조율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플로깅이 새로운 시도라 청년들이 끝까지 활동에 잘 참여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잠수 타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가끔 컨디션 문제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정적이 흐를 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점이 부담되었어요. 초반에는 이 부분이 너무 신경쓰였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플로깅 활동이라 말하다가 어색하면 쓰레기 줍고 한템포 쉬어 가면 되니까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쓰레기 주우면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에 경청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박미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하림: 하나는 기대했던 것 보다 청년들이 플로깅 활동을 은근히 좋아하고 쓰레기 줍기를 너무 열심히 해주어서 좋았어요. 또 하나는 활동이 끝난 후에 다같이 모여서 식당에 가거나 당번을 정해 조리하거나 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칼질부터 불조절, 간 보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워가면서 요리를 하고 나누어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박미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하림: 지난번 중간모니터링 때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의 대표제안자 안장호 님과 인연이 되어 은둔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어하우스 공간의 수리를 모두하우징 팀과 은둔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의 대표제안자 세 분이 오셔서 세 팀으로 나누어 세어하우스 곳곳에 도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을 수리하며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집수리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이 모든 경험은 먼저 따뜻하게 말 걸어주시고 챙겨주신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점심을 먹으며 청년들에게 막걸리를 한잔씩 주셨는데 일하는 중간에 먹는 막걸리, 어른들과 나누는 담소, 이런 경험들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집수리 기술도 배워 나중에 청년들 중에 이 일이 적성에 맞아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박미나: 삭팍은 마을 안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전하림: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지나가다 보면 맛있는 뽕새도 나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웃이랑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삭팍도 청년들에게 그런 무더위 쉼터 같은 공간이 되고 싶어요. 한번 왔다 가도 관촬은 곳, 청년들이 부담없이 올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리적 허들이 있는데 이런 은둔청년들이 허들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을 꿈꿔요.



플로깅을 시작한 이유도 대화하는게 부담스러운데 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고 몸으로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박미나: 쓱삭에서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전하림: 저희 동네에 주민공유 공간인 ‘소나무협동마을 도란도란 솔마루’가 있어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꼭 차를 마시지 않아도 주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일반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먼저 알은체 해주시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안내도 해주셨어요. 급하게 대관 요청을 하게 됐을 때도 잘 받아주시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급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맛있는 냄새가 나면 ‘뭐하는 거예요?’ 라고 부담없이 물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을공동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박미나: 쓱삭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전하림: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에 청년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마을에 활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집계를 들고 골목 곳곳을 누비다 보면 골목 곳곳에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뵈는데요, 인사를 하면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하림 님과 이야기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강북구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쓱삭의 전하림 님도 은둔청년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머지않아 복잡복잡하고 사람냄새 풀풀 나는 신나고 즐거운 쓱삭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아리랑 합창단 : 찾아가는 음악회



참된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 '아리랑 합창단'

김인제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강북구

마을주민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웃과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주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즐거운 마을살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차정규
민경태
이승헌

김인제: 반갑습니다.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차정규: 안녕하세요. 아리랑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정규라고 합니다.

저희 아리랑 합창단은 번동에 위치한 도란도란 마을극장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노래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지나온 삶을 위로하는 노래와 어릴적 배웠던 추억의 동요도 함께 부르면서 합창을 통한 이웃소통과 지역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아리랑(我理朗)'은 '참된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모든 단원들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해 참된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부르며 서로의 인생을 격려하고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합창단이 되고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차정규: 지방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몇 번 합창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합창을 배우게 되었는데, 매번 사업이 종료되면 합창단이 없어지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여, 함께 합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몇몇 지인들이 모여 자체 회비로 운영되는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고, 이번 2023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주민모임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마을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차정규: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리랑 합창단에서 함께 배우며 노래하는 합창곡들은 대부분 그 동안 치열하게 살아냈던 우리네 인생을 위로해 주는 곡들과 어릴 적 배웠던 추억의 동요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합창을 할 때는 모두가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마 합창이 갖는 장점이자 저희 아리랑 합창단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었지요.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웠거나 특별히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김인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차정규: 실력이 좋은 프로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단지 실력만으로 따지자면 저희 아리랑 합창단은 아마추어죠. 하지만 노래를 대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고 우리의 합창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비록 합창단이 시작 된지 1년 남짓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2023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과 함께 동요도 부르고, 번1동 마을주민총회에서 축하공연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참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인제: 마을 안에서 아리랑 합창단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차정규: 저희 합창단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 말은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래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노래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부르다보면 노래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리랑 합창단 지휘자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리랑 합창단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합창단입니다. 악보에 사람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악보를 맞추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마을 속 이웃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나누는 합창단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쟁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화음을 이루어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법을 연습하며, 마음이 담긴 노래를 통해 이웃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김인제: 아리랑 합창단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차정규: 마을공동체는 단어 그 자체로 마을이 어떤 목적을 위해 뜻을 같이하여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리랑 합창단은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합창을 매개로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화된 이웃과의 소통문화를 확산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뜻을 같이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차정규: 합창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합창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립합창단, 구립합창단과 같이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견비하고 멋진 공연복을 차려입고 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의 과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도한 연습과정이 주객이 전도되어 사람이 합창을 위해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은 부르는 사람이 나 듣는 사람 모두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아리랑 합창단은 큰 무대에서의 공연보다는 합창 그 자체를 즐기고 또한 우리가 느꼈던 그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리랑 합창단을 통해 지역 이웃들이 보다 즐거운 마을살이를 경험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우린 친한 사이가 아니야: 재미난 학교의 재미난 밴드



‘우린 친한 사이가 아니야!’로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
어느새 친해졌어요.

김혜신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우이동

재미난학교(대안교육기관) 학부모들로 구성된 밴드 모임으로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공연을 열어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손혜림
안효진
황선호

2023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첫 발을 떼는 모임들은 이웃만들기라는 첫 단계를 거쳐 마을살이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지역 마을공동체 대표 모델로 종종 소개되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 이곳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우린 친한 사이가 아니야!’라는 모임을 만들어 ‘재미난 학교의 재미난 밴드’ 활동을 한다고 하니 궁금함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모임구성원 5명과 진행하였고, 개별 사람에 대한 지칭 없이 내용을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김혜신: 재미난 마을 분들이라고 하니 서로 친할 것 같은데,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니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지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친사: 재미난 학교의 학부모, 선생님 등 악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일렉기타, 보컬 5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작년 12월 재미난 학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됐어요. 마무리하는 굿바이 행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을에서 어우러지길 바라면서 만들어진 어울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계획했어요. 그때 의미도 있고 해서 공연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악기를 좋아하고 의미 있는 공연에도 참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거죠. 아쉽게도 사정상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연은 못하게 되었지만, 이왕 모인 김에 ‘언젠가’를 생각하며 모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구성원들이 재미난 학교라는 소속감은 있지만,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도 학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 친하지는 않았던 사이라 있는 그대로 모임 명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동안 만남이 어려워 생긴 서먹함을 공통의 관심사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활동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친사: 사업계획서를 낼 때만 해도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연습과 만남을 진행해서 친한 사이가 되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월 4회요. 악기와 밴드라는 것이 힐링이 되는지, 일요일 저녁인데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6, 7곡을 선정해서 합주연습하고 있고, 9월 16일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신: 매주 만남, 일요일, 와, 쉬운 일정이 아닌데, 모임을 활성화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친사: “연주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처음에는 보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타를 별도로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니 좋아요.”

“음악이라는 공통성, 우리도 밴드다라는 자부심.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동네친구들이 생기니 만남이 기대됩니다.”



“서로 무언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느슨하면서도 함께 하는 따로 또 같이의 편안함? 그래서 더 자발적이게 되요.”

“주 1회 만나서 악기로 나누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이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앞두고 공연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 왔음 하고요. 그날 공연장을 찾아주신 마을사람들과 즐기고 싶어요.”

“상반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면서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었어요. 연습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움이 더 큼니다. ‘그래서 마을살이, 마을공동체 하나? 마을활동이 이래서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혜신: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들도 나눠주세요.

우친사: 동네에 2016년에 만들어져 현재 100여 명이 소통하는 단독방이 있어요. 시작은 마을에서 수공예로 물품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방에서 자연스런 나눔과 장터가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굳이 누가 운영하지 않고, 모두가 알아서 소통 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 아이 000 분 사람~~’하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답을 합니다. 마을CCTV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매력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자연스레 마을 분들과 교류도 하다 보니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을에 있고 싶습니다.

김혜신: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친사: 처음엔 재미난 학교이다 보니 관심사가 아이였어요. 지금은 내가, 우리가, 어른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하다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되고 주변 지인들도 부러워해요. 심지어 도전하는 삶이 멋있다, 용기 있다는 응원을 해주고 스스로도 원하는 것을 위해 한 발을 단게 하는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코로나 3년으로 생긴 원치않았던 거리감들을 밴드 연습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스스로의 희망과 꿈에 한걸음 나서게 되면 그 사람들의 다양한 시도와 에너지들이 모여 지역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요.

악기, 음악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로 모이고, 만남과 연습을 통해 자기실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그 결과를 나누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마을살이의 한 모습을 이 모임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가족과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전달하고 동네를 보다 즐거운 곳으로 변하게도 한다.

9월 16일 첫 발표회를 앞두고 보컬의 별칭을 따 ‘모모밴드’ 발표회로 할까 생각중이라는 ‘우린 친한 사이가 아니야. 수다도 잠시,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연습을 시작했다. 친한 사이가 되고 싶은 ‘우리가 있다면 공동의 관심사로 먼저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인수탐험대 : 북한산 탐구생활



우리마을, 북한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

이다현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인수동

북한산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자료를 참고로 생태자원지도 그리기, 숲에서 하는 명상, 숲 지키기 활동을 합니다.

이유미
이서영
조성희

인수동은 북한산 자락 아래, 숲과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인수동 주민들은 자연이 주는 사계절의 변화에 감응하며 살아간다. '인수탐험대'는 이러한 감응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만 느낄 게 아니라, 북한산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며 지키자고 말한다. 저녁 바람이 스산해진 9월 초, 인수탐험대의 대표제안자 이유미 님을 만났다.

이다현: 안녕하세요. 인수탐험대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이유미: 인수탐험대는 북한산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마을에 있는 북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만들어졌어요.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숲생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했어요. 5월 27일에 열린 '숲속 클래식 음악회'를 시작으로 '북한산의 곤충들', '북한산의 숲의 가치'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숲명상, 숲지킴이 활동(줍깅), 생태자원지도 그리기도 인수탐험대의 주요 활동입니다.

이다현: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유미: 저희가 어진이마을(인수동)에 사는데요. 마을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북한산 둘레길의 신갈나무군락이 생태자원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에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인데 말이죠. 보다 본격적으로 북한산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다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유미: 아무래도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려웠어요. 저희는 각 회차의 프로그램마다 인원을 모집했는데, 감사하게도 매 회당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와주셨어요. 모임이 거듭될수록 같은 뜻은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다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유미: 전문 강사님이 진행한 숲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이 분들은 숲생태에 관한 전문가인데, 북한산을 둘러보고는 엄청나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동식물 고유자원이 풍부하여 생물다양성을 가졌다면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 마을을 품은 북한산의 생물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다현: 마을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이유미: ‘인수탐험대’란 이름은 사업이 끝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임을 함께 했던 분들은 남겠죠. 이 분들과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인수탐험대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다현: ‘인수탐험대’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이유미: 마을공동체를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람’, ‘마을’,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북한산)을 지키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현: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이유미: 마을 분들이 편안한 차림으로 ‘갈 곳’이 있다는 걸 좋아하셨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니까요. 시간도 절약되고, 동네 이웃도 사귀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수탐험대를 기획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다현: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인수탐험대를 평가해주세요.

이유미: 아쉬웠던 점은 역할분담 문제예요.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 자신이 누리는 소중한 것들을 잊곤 한다. 북한산 자락, 인수동에 산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유미 님. 숲 옆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것을 돌보며 지키고 싶다고 그녀는 말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수동 산허리에 걸린 고운 운무가 어제보다 더 눈부셨다.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이웃만들기

참새방앗간 : 소박한 생활문화예술 누리기



소박한 생활문화예술로 공간 속의 즐거움이 함께 하는 '참새방앗간'

오영숙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삼양동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를 진행하며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며, 노년층이 많은 삼양동에 건강체조 등의 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이복희
이옥령
이혜인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경사가 높은 삼양동의 언덕을 오르다 보면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걸려있는 공방이 나온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이복희님을 만나고 왔다.

오영숙: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참새방앗간도 소개해 주세요.

이복희: 안녕하세요? 참새방앗간의 공간 지기로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 이복희입니다.

참새방앗간의 처음 시작은 개인의 작업 공간이었지만 봉사단체인 '소나무협동마을' 활동을 하면서 모임 공간이 마땅치 않아 활동공간,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께서 자주 들르는 쉼터가 되었고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을 통해 4년이란 시간 동안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며, 주민 누구나 오고 가면서 배움과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방이 참새방앗간으로 되었습니다.

오영숙: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와 역할들을 말씀해 주세요. 숨씨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 자랑거리도 좋습니다.

이복희: 참새방앗간의 단골손님이 되어 주시는 이OO님은 다른 건 못해도 참석률 100% 달성은 잘 한다며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뜨개질이 일상이신 최OO님, 자연의 꽃을 재료로 압화공예를 잘하는 조OO님 등과 함께하며 생활 속 필요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재능을 필요로 하는 참여 주민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오영숙: 그동안 활동 내용들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복희: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MP 비누 만들기, 양말목을 이용한 업사이클 활동, 내 맘대로 주물주물 주물러 비누 만들기 등 대부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 활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재밌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영숙: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힘들었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복희: 활동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는 즐거움이었어요.

활동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활동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으로 저희 사업을 기록하고 알리고 싶었는데 부족함이 있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아쉬워요. 젊은 세대들은 쉬운 방법들이겠지만 아날로그가 익숙한 저희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었고, 편리한 기기를 활용 못 하는 아쉬움도 컸답니다.

오영숙: 참새방앗간에서 계획한 일이나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복희: 참새방앗간 주변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을에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많아지고 불편한 점, 어려운 점들을 같이 접하게 되면서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보통 도서관이란 아이들만의 활동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 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함께라서 좋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배우는 문화 교실과 인지 향상 활동,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함께하는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소통과 온기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오영숙: 참새방앗간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까요?

이복희: 재주 있어 나눌 수 있는 사람, 똥손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뭘 하는 공간인지 궁금한 사람, 누구나 환영합니다! 딱히 불일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고 와글와글 수다떨며 어울리다 보면 누구나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생기는 요술 공간이 참새방앗간이에요. 참새방앗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영숙: 참새방앗간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복희: 함께하는 소중함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의 갈증 해소를 위한 오아시스로, 마을 속에 자리를 잡고 싶은 작은 공간 참새방앗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참새방앗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을 포근함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이웃들이 있어 행복함을 느낀다. 가을 풍경처럼 아름답고 이웃과 함께 하는 정겨움이 있고, 주민 누구든 품는 넉넉함도 있는 참새방앗간에서 삶을 느끼고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지나간 차가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따스해지는 느낌이 든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가·통·찬 맘 키즈 플러스



엄마 어디가?! 강북구랑 놀자!

김세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삼각산동

책모임, 문화체험, 농장체험 등의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로 마을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세리
김나은
김혜미

삼각산동 아파트 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이름부터 흥미로운 '가·통·찬 맘 키즈플러스' 함께 만나보시죠.

김세진: 안녕하세요. 우선, 모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세리: 네. 저희는 '가·통·찬 맘 키즈플러스' 모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웃만들기에 '가·통·찬 맘 더하기'라는 모임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함께 했던 엄마들의 재능나눔으로 모임을 진행했었고 일년 활동을 하다보니 친분도 쌓이고 보람도 있어서 올해는 아이들도 함께 하는 활동을 고민하여 '가·통·찬 맘 키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직장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모임을 통해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잠깐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올해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세리: 올해에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강북구 지역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강북구와 연계되어 있는 도농상생지역에 가서 체험활동을 했어요. 강북구에 가마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화체험장인 가마터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보았구요. 인근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는 의미로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그 책들을 나눔장터를 열어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그것까지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북구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로 추석 즈음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 경비원분들, 청소도우미분들의 노고에 감사해 하며 음식 나눔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와 연계가 있는 원주 지역에 1박 2일로 체험활동을 다녀왔는데,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 고구마도 캐보고 피자도 만들어 먹으며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세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통·찬 맘 모임이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김세리: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삼각산동은 아파트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함께 하고 싶은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었고, 관심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음도 잘 맞고 재미도 느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올해에는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다녀오다보니 더 돈독해진 기분이예요.

김세진: 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들어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작년 올해 활동하시면서 힘든신 적은 없었나요?

김세리: 아무래도 저희가 대부분 직장맘들이다보니 평일에는 활동이 어려워 주로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가족들마다 일정이 있다보니 조율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 체험같은 경우는 아예 여름방학 때 하자고 정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세진: 그럼 반대로 너무 좋았던 것은 어떤것들이 있었나요?

김세리: 아무래도 마지막에 함께 했던 농촌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도 좋았지만, 날씨가 진짜 좋아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곤충 잡으러 다니고, 개울가 가고, 한쪽에서 남자애들은 씨름도 하고, 어른신은 고구마 줄기를 캐시는 등 안정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특히나 농협에서 저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김세진: 올해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김세리: 원래 감정코칭 수업을 듣고 자녀들과 진행한 후에 그 책을 다른 엄마들이랑 나눔을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못한점이 아쉬워요. 집에 아이들이 읽은 책들이 많잖아요. 나눔장터처럼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아파트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활동장으로 생각했었는데,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아직 공간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음식 나눔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장을 봐서 나누는 행사로 축소해서 진행하게 된 것도 아쉽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모집 인원엔 제한을 두게 되는 점도 아쉽더라고요.



김세진: 기·통·찬 맘 키즈플러스만의 장점이 있다면?

김세리: 대표제안자 세 명의 마음이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각자 역할이 나뉘져 있는데, 손발이 잘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다른 엄마가 채워주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또 채워주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가는 게 장점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재능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네요.

김세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김세리: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목표를 잡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이웃을 만들고, 만나는 곳.

김세진: 끝으로 기·통·찬 맘 키즈플러스는 마을 안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으신가요?

김세리: 처음에 엄마들의 힐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작했던 모임이거든요. 원래 엄마들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통·찬 맘이 삼각산동에서 엄마들의 힐링 장소로, 편안한 모임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해요.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닷별 : 설렘과 도약



자라나는 청소년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닷별’

김혜화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번3동

닷별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김미현
박유성
김미진

‘닷별’은 북극성을 찾아가는 길잡이 별 카시오페아의 우리말이다. 그렇게 별의 이름처럼 아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 ‘닷별 작은도서관’을 찾아갔다. 휴일 오전 이른 시간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활동에 진지한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열린공간에서 과학 실험하는 아이들의 주변에서 활동에 도움을 주며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사랑 가득한 눈빛이 몽클했다. 중학생들은 아늑하고 조용한 강의실에서 48연필을 쥐고 선을 이용한 명암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닷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현님을 만날 수 있었다.

김혜화: 모임의 활동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나요?

김미현: 닷벌의 올해 활동으로는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방과 후 작은 마을학교, 설렘과 도약의 시간 나눔'의 계획으로 마을공동체 예산을 받아 마을의 청소년과 학부모 중심이 된 공동 육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김혜화: 모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김미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닷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혼자 집에서 게임과 텔레비전 시청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장기를 보내는 것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 이 닷벌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해주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주고 싶었고, 주말엔 중등 친구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지원하고 싶어 틈새 돌봄을 진행하게 된거죠.



김혜화: 참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있나요?

김미현: 봉사하는 분들의 특별한 자격은 없어요. 처음 시작 할 때도 유치원 다니던 아이 부모들의 돌봄 봉사, 재능기부, 십시일반으로 작게 공동육아로 시작했어요. 직장 맘은 아이를 돌봐주니 마음 놓을 수 있었구요. 그후 아이들은 성장하였고, 닷벌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죠.

김혜화: 정말 훌륭한 취지의 공간인것 같아요. 운영에 힘들거나 어려움은 없으세요?

김미현: 코로나를 기해 참여자 전체가 모여 공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어요.



더 많은 주민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쉽고 사업참여 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지역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는 홍보와 활동기획에 발이 묶였던 부분이 활동 정체로 이어졌어요. 이젠 물리적 규제가 풀려 활동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요.

김혜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김미현: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걱정이었는데 돌봄의 균형에 도움이 되니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보람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요.

김혜화: 마을 안에서 닷별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길 바라는지요?

김미현: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자유롭게 탐구하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스스로가 즐기고, 바꾸고자 하는걸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닷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작은 마을학교를 통해서 닷별이 가정의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재미있고 자유로운 놀이, 안전한 활동, 친구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결여된 사회성과 다양한 교류의 장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혜화: 닷별이 우리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한가지만 꼽아 주세요.

김미현: 작년에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해금, 민화 등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확산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금, 민화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민화 그리기 활동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전시회도 가지는 등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엄마가 돌보기 어렵고 학원에 안 가면 우리 아이만 결손이 생길 것 같은 불안이 있지만, 함께 놀이 할 친구가 학원에 있어서 학원엘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는 학원에 가야 하고, 엄마는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굴레이다. 하지만 닷별에서는 친구와 어울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는 나를 지켜봐주고 활동의 보조자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 덕에 아이들이 게임과 텔레비전을 덜 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평가회에서의 이야기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여태 기사를 쓰며 마을 곳곳을 취재할 때, 활동 모습을 스케치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가급적 담백하게 쓰겠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닷별의 활동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되면서 닷별 도서관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기획으로 승승장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진다. 보다 더 많이 번3동의 청소년들에게 알려져 찾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경쟁력있는 마을 속 학교,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닷별이 되길 바란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몸지클럽 : 몸살림 지구살림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싶은 클럽

박영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번3동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 이웃과의 소통으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설혜운
정은경
원세연

지구를 위해 마을을 위해 활동하고 실천하며 마을과 성장하고 싶은 몸지클럽의 사업지기 분들을 만났다.

박영진: 어떻게 모임을 만들게 되셨나요?

설혜운: 번3동에서 같은 초등학교 부모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다가 공동육아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공동육아와 유기농 반찬 만들기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박주미: 가족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몸도 지구도 건강히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몸살림 지구살림'(몸지클럽)이라는 모임 이름으로 2017년부터 모이기 시작하게 벌써 7년이 되었네요.

박영진 : 몸지클럽이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박주미 : 말 그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환경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부터 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애써야 한다고 하지요? 나의 아이, 나의 가족만 잘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함께 잘 살아가고 싶었어요. 가족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주고 싶고, 그러려면 좋은 재료,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지구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힘도 들었을 것이고 왜 서운한 것이 없겠어요. 속으로 서운하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다들 해를 거듭할 때마다 큰 잡음 없이, 큰 변동 없이, 다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도 함께 했어요. 7년의 시간 동안 항상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모임이 지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혜윤 :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모임도 그렇지만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환경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며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언니들을 보며 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박영진 : 모임을 운영하면서 힘들었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정선영 : 저희가 각자의 일들이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몸지클럽을 알리고 새로운 회원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박주미 : 어려운 점은 저를 비롯해 구성원들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어요. 주중에는 일과 집안일, 주말에도 할 일은 많은데 마을일까지 병행하러니 정말 시간이 나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작은 행사를 하려해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기까지 세 배, 네 배 이상의 시간을 내어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왜?라고 자책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주는 분들이 꼭 있으니 모임이 여기까지 온거겠지요?

설혜윤 :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특히 홍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당근마켓에 홍보도 해보고 동네 버스정류장과 놀이터에 전단지도 붙여봤지만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어요. 모임만 한다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쉬엄쉬엄 천천히 할 수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정해 놓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도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다독이는 언니들을 보며 저도 힘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영진 : 7년 동안 함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지요?

설혜윤 : 매 순간마다 기억에 남지만 코로나 전에 놀이터에서 했던 환경장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선영 : 저도 환경장터 기억이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잘 끝났다는 기쁨과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나 혼자라면 못 했을텐데 함께라서 가능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설혜윤: 준비할 것도 많고 힘들었지만 각자 물건을 가져와서 사고 팔며 활짝 웃던 사람들의 모습과 환경 퀴즈를 진지하게 풀던 아이들을 보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장터는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박주미: 모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강북구엔 환경과 지구에 대한 이슈가 크지 않아서인지 학부모도 아이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공부하고 서로 배우며 실천하고 알려면서 재활용 장터도 열고, 환경수업도 하고, 마음 체조와 쓰줍기도 하다보니 마을과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시작했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텀블러와 손수건을 생활화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게 되었고 각종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구성원 모두 곳곳에서 주민자치, 마을센터 등 마을에 대한 일을 조금씩 하는 것을 보면서 힘이 났어요. 허투루 애쓰는 일은 없구나, 언젠가는 필요한 곳에서 쓰이게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흐뭇하고 기억에 남네요.

박영진: 학부모에서 모임으로, 모임이 관심과 실천의 사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네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 실천이 되기까지 몸지클럽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박주미: 저는 결국은 마을공동체는 ‘확장된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여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국가가 될 수 있듯이, 마을공동체 자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에 잠시 방법을 잊었고 이를 회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했고 조금 이나마 관심과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더 힘써 행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춘기가 되면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를 찾아 헤매듯이 좀 더 ‘확장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어 편안함이 있다면 공동체의 활동은 생기와 뿌듯함, 함께 할 수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국가, 더 나아가 온 인류, 온 우주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정선영: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닌 그 이상의 무리, 그 안에서의 ‘관심, 배려,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모임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상황에 따라 배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도움주면서 실천하여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다 같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동체로 활동하고 마을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설혜윤: ‘성장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만약 공동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마을이 그냥 집이라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만 생각했을텐데 만나서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면서 좋은 강의를 듣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하지 않을까요.

박영진: 마을 안에서 몸지클럽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으신지요?

설혜윤: 9년전 처음 이사오면서 막막하고 외로웠었는데, 손 내밀어 준 몸지클럽의 든든한 언니 동생들의 모임으로 편안한 마을살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마을에서 편하게 차 한잔 함께하며 살아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진: 인터뷰 감사합니다. 해 오신 활동이 마을 곳곳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미인도 : Oneness(하나 된) Mia!



희망을 그리는 미아의 미인도

박영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 | | |
|------------|--|----------------------------|
| <p>미아동</p> | <p>미아의 청년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미아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p> | <p>곽정자 김반짝 김효정</p> |
|------------|--|----------------------------|

하나되는 미아를 희망하는 곽정자 사업지기를 만난 곳은 정원이 잘 꾸며진 수유1동의 은빛마당에서이다. 그동안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주민들과 공유회를 하고 잠깐 자리를 마련해 인터뷰를 시작했다.

박영진: 미인도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곽정자: 처음 미아동 골목에서 동네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미아 골목을 깨끗하게 예쁘게 꾸밀 수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진: 현재 그때 그분들과 함께하고 계신지요?

곽정자: 지금은 같이하지 않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효정님과 같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김효정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함께 활동해보시니 어떠세요?

김효정: 미인도 사업이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의 만남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박영진: 미인도에서 올해 활동했던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실까요?

곽정자: 「합체」 연극 공연 관람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일반배우와 청각장애 배우가 함께 공연하는 모습에서 배우들의 말과 동작이아말로 진정한 합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효정: 저도 연극 공연이 인상 깊었어요. 비장애 배우의 공연 내용을 청각장애 배우가 수어를 하면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수어 통역만을 생각했는데 배우이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닌 손을 통해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장애, 비장애 관객 모두에게 연극 내용이 전달된 것 같고 방해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박영진: 효정님은 미인도 사업이 주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효정: 지방에서 올라와 집과 일터만 왔다갔다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게 되고 동네 친구가 없었는데,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동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생각과 시야도 넓어지고 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경계없이 활동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재미있고 자주 참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영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힘들었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곽정자: 청년들이 동네에 없어 모임이 힘들었고, 그 다음으론 장애 청년들도 모집하기 힘들었어요. 가까운 곳에 애화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요청해 고3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마침 학교에서 하는 수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수어도 배울 기회가 생겼어요.

박영진: 마을 안에서 미인도는 어떤 모임이 되고 싶으신지요?

곽정자: 애화학교 고3 학생들과 AI(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를 함께 했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보고 싶습니다.

박영진: 효정님도 내년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고 싶으신가요?

김효정: 연령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동, 취미 모임 등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미아동의 숨겨진 카페나 맛집을 찾으러 다니고 자료 수집해서 블로그 등에 알려져 지역상가를 홍보하면서 다 함께 살아가는 동네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인도에서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의 모임으로 연극, 뮤지컬, 그림 전시 등 문화 활동을 함께하면서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청년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한다. 첫 시도인 올해는 특수학교의 도움을 받아 활동 해야했지만, 강북구 청년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깬 모임 활동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공유회장을 나왔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숨:통 트이다



우리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로, 모두의 변화가 지구의 숨:통을 트이다

김유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삼각산동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환경에 관하여 삼각산동, 송천동 이웃들과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민정
이해진
이은미

삼각산동 새마을문고에서 의미있고 재밌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싶었다.

약속보다 이른 시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벌써 준비가 끝난 모양이다. 숨:통 트이다 멤버들이 오늘 활동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한 쪽 테이블 위에 바다유리 목걸이며 화분, 면파우치에 봉긋이 담긴 간식을 보고 '아, 애정을 담백 담았구나,' 마음속에서 감동이 밀려왔다.

인사를 나누며 올망졸망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쓰레기 버릴 때 어디에 버려요?”

“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될까요?”

“쓰레기인데 우리가 돈을 내고 버리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종량제 봉투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분리배출은 왜 해야 할까요?”

“재활용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바다생물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 봉지를 먹이인줄 알고 먹는다는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성이 튀어나오고, 바다거북이의 코에 박힌 빨대 뉴스를 봤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저마다 경험하고 알고 있던 내용과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예뻐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샀던,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소비하는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숨:통 트이다에서는 사용 후 버려진 쓰레기와 전선을 엮어 팔찌를 만들었고, 바다 유리에 붙어 살수 없게 되었지만 파도가 일렁이며 몽뚝하게 다듬어진 조개와 유리로 목걸이와 브로치를 만들었다.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든 비건가죽 가방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를 통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모인 어린이들 이외에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숨:통 트이다 멤버들이 직접 바닷가에 가서 주워온 바다 유리를 가지고 업사이클링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은 아주 특별했다. 각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바다 유리를 보고 멤버들이 깨끗이 청소한 바다 환경을 상상하면서, ‘서해에 반짝 동해에 반짝’ 하도록 시간과 정성을 내어준 숨:통 트이다 멤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구를 깨끗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림도 그리고 매듭도 짓고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알아가면서 활동이 끝났다. 활동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상기되고 집중된 친구들에게 오늘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니, 너무나 의미 있고 바다 유리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오늘 의 활동이 바다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모양도 정말 예뻐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줄이기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집 가까운 곳에서 진행하니 공간도 안심이 되고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아이들 보는데 쓰레기 버리기가 조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하하하’ 라며 호탕한 웃음을 남겨주셨다.

오늘의 활동을 지켜본 부모님 외의 다른 어른들의 소감도 들어 보았다.

공간을 활짝 열어준 새마을문고에서는 ‘주변에 도서관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새마을 도서관은 도서관인줄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좋은 활동을 통해 공간을 알리고 지역거주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싶어요. 새마을문고 홍보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동안에 공동체 느낌이 물씬 나서 저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본 부모님들은 활동의 취지가 기후변화, 쓰레기, 업사이클링 등인데, 또래들이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환경교육까지 하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엄청 알차고 인상적이어서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바다에 좋은 것이라 더 좋아요라는 감상평과 함께.

숨:통 트이다 멤버들은 자신들도 조금씩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처음엔 관심이 이리 크지 않았는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변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개인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여 주위가 조용히 조금씩 바뀌도록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요라는 아무진 꿈을 전하며 지구 환경과 우리를 위해 영향을 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 다른 멤버는 처음엔 만남 알고 동동거리다가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는 가족 공통의 환경 이슈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다. 요즘은 전세가 역전되어 '에어컨 안 켜도 되잖아? 포장이 너무 과한 제품은 사지 말자'며 오히려 기분 좋은 잔소리를 듣는다고도 했다.

“힘든 점은 전혀 없어요.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전에는 이걸 환경과 같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만들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재료 선택부터 쓰레기가 되는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개인적 성장들도 있었다. 남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려면 나도 잘 알아야겠기에 저절로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유튜브와 책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이웃을 만나게 되니 사고의 폭을 넓힐 수도 있었다고 한다. 또 아이들에게 엄마 활동의 영향이 전해져 집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며 “집에서도 실천하게 되고, 환경 생각하면 책임감이 들어요. 제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도 한다. 숨:통 트이다 멤버들은 입을 모아 소규모 목적은 달성했고 이제는 대기업의 제품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큰 포부도 전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가 잘 뭉칠 수 있었고 또 발전하게 되고 마을 이웃과 만나게 되어, 이것을 기획한 구청과 마을자치센터에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고맙다는 기분 좋은 인사를 내게 대신 전했다. 품을 내어 이웃을 만나고 마을에 마음을 전한 숨:통 트이다 멤버들에게 나 역시 감사의 인사를 꾸벅 전해 본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틈새놀이교육



돌봄의 '공백'을 메꾸다, 틈새놀이교육

이다현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인수동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틈새 시간을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유익한 활동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박미나
홍수연
윤복관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그 '틈새'를 메꿔주는 곳이 있다. 어진이마을(인수동)을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틈새놀이교육'. 작년에 이어 올해, 틈새놀이교육을 2년째 이끌고 있는 대표제안자 박미나님을 만났다.

이다현: 안녕하세요. '틈새놀이교육'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박미나: 저희 '틈새놀이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대와 주말에 다양한 돌봄 및 교육활동을 합니다. 독서와 미술, 공예와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우이초등학교나 인수초등학교 근처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보니 놀이터가 거의 없어요. 하교 후 아이들이 모여 마땅히 놀 공간도 없고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간식을 먹으며 휴대폰 게임을 합니다. 그마저 여유가 없는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위험하게 모여있기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몇몇 마을 분과 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다현: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미나: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 마을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신경 써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이다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박미나: 주말에는 박물관이나 궁궐 견학, 숲 프로그램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막상 모집을 시작하면 참여율이 저조해요. 아이들 나름대로 가족 행사나 일정이 있거든요. 수영과 축구 같은 운동을 하거나,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도 인원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정에 따라 모임 장소가 달라져요.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 역시 쉽지 않네요.

또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뭐하는 곳인데 아이들을 모집하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지금은 '틈새놀이교육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교육활동을 한다'라고 알려져서 지원을 해주세요.

이다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박미나: 내가 아이들하고 꽤 친해졌구나, 하고 느낄 때예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저를 ‘이모’라고 친근하게 불러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예산도 적어서 운영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참여했던 학부모님이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격려와 응원들이 2년째 틈새놀이교육을 이끄는 힘을 줍니다.

이다현: 마을에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박미나: ‘돌봄’의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마을에서 품어주는 모임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작년보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몇몇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틈새놀이교육이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전하는 교육놀이문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다현: 틈새놀이교육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박미나: 사람들이 이사할 곳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교통이나 편의시설, 학교나 병원 등도 따져보고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틈새놀이교육이 있는 어진이 마을(인수동)이 ‘살고 싶어지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머무르게 하는 마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이다현: 모임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말씀해주세요.

박미나: 우선 마을에 친한 아이들이 생겼어요. 아이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점점 오래 만나고 싶은 든든한 이웃들이 늘어갑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살기를 잘했구나, 라는 마을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돌봄’이 있는 마을을 생각했다. 돌봄이 꼭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돌봄의 역할이 아닐는지.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틈새놀이교육’, 그 다정한 돌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공동체모임활성화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 다시! 함께! 앞으로!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그리고 마을

김세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번동

'하늘을 나는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모임을 하고 있고 텃밭가꾸기, 바자회, 지역인재강의, 소모임 지원 등의 활동을 합니다.

신영아
김기주
임성이

번동에 오랜 시간 활동한 마을 모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름하여 함·크·아!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크·아 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김세진: 안녕하세요.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기주: 안녕하세요. 저는 함·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주라고 합니다.

신영아: 네, 저도 함·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아라고 합니다.

김세진: 함·크·아라는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모임인가요?

김기주: 원래 모임의 이름은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전에 마을자치센터 선생님 들께서 줄여서 ‘함.크.아’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입에 착 붙어서 그 뒤로는 저희도 함.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남은 아이들이 5살 때 학부모로 만났어요.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니 끝나면 같이 어울려 놓고 하다가 2017년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영아: 엄마의 시간도 아이의 나이와 같이 크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라는 이름처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세진: 왜 2017년부터라니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럼,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김기주: 처음에는 능력있는 엄마들의 재능기부로 만들기 활동, 독서수업, 글쓰기 수업, 음악이론 수업 등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벼룩시장도 열고, 도서관에서 영화상영회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차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싶어 재능 있고 나눌 준비가 되어있는 엄마들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재작년부터 엄마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아: 특히, 코로나 때 엄마들의 우울감이 많이 높아졌었죠.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온라인 책모임이나 만들기 키트를 나눠서 카톡방에서 과정과 결과물들을 공유하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김세진: 그럼 올해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김기주: 올해는 함께 하는 엄마들과 워크숍 및 기획회의를 4회 진행하면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한 회원의 옥상텃밭에서 함께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눔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전에 했던 벼룩시장을 한동안 코로나로 소소하게 진행하다가 올해는 규모를 키워서 진행해보려 합니다. 또 전부터 했던 지역인재 강의라고, 지역에 있는 재능있는 분을 발굴하고 그분들께 노하우를 전수 받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동안 버르고 있었던, 참여자에서 운영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소모임을 맡아 진행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반찬 만들기 팀이 신명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진행됐던 마을 행사에도 부스 지킴이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등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김세진: 그럼 이렇게 오랜시간 함.크.아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김기주: 저랑 영아쌤이 이사를 가지 않아서? (웃음) 처음 활동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중학생인데, 지금도 도서관(김기주님은 ‘하늘을 나는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이기도 하다.) 가자고 하면 두말 없이 와 주어요.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부담없이 편안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네요.

신영아: 일단 함께 활동하는게 재밌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해서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같이 활동하는 모두가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않고 서로 고맙다는 말을 계속 주고받는 점도 모임이 잘 유지되는 힘인 것 같아요.

김세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기주: 다 재미 있었어서 뭐를 꼽아야 할까요? 음...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벼룩시장도 재미있었고 도서관 마당에서 작게 열었던 영화상영회도 너무 즐거운 기억이네요.

신영아: 송편 만들기 했던 것도 재미있었어요. 원래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는 재미가 크잖아요. 요즘은 명절에도 집에서 송편을 잘 만들지 않는데, 모임에서 같이 만드니 더 꿀맛이었답니다.



김세진: 그럼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신영아: 아무래도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만나지 못하니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다 키트로 제작해서 나눔하는 과정이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김기주: 모임이 오래 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니 그 안에서 섭섭한 감정들도 생기는데, 다행히 큰 일 없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저랑 영아쌤만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버거움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더 마음을 내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생겨서 좋습니다.

김세진: 앞으로 함·크·아는 마을안에서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김기주: 벌써 활동한지 5년째 이다보니 내년에는 함·크·아라는 이름으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성장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뭔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기도 하고,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주변에 퇴직하신 분 중에 재능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를 위한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아: 맞아요. 재능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세진: 함·크·아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신영아: 함께 살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게 지냈고 많은 것을 얻었고요.

김기주: 마을공동체는 사람도, 지역도 살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볼 수 있잖아요. 또한 다른 동네 활동들을 보며,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없는지 자극 받아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살리기도 하잖아요.

김세진: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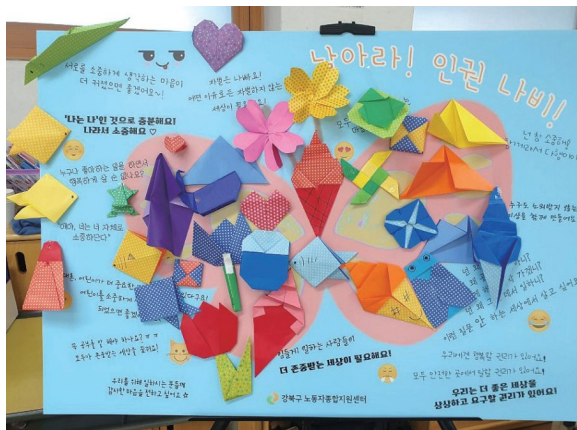
김기주: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알기에 계속 유지되며 더욱 확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아: 공동체 활동의 연령대가 더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번동의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나아가 함께 크는 동네까지 생각하는 두 분의 생각 덕에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마을특화활동지원

똑똑 : 강북 청소년 노동 인권지킴이



똑똑,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노력

김유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 | | |
|------------|--|----------------------------|
| <p>강북구</p> | <p>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취업 직전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인권 영화 상영 등을 통해 강북구의 청소년들이 어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지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합니다.</p> | <p>김새해 유장희 김수근</p> |
|------------|--|----------------------------|

‘똑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설렌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다정하고 낮은 소리, 똑똑. 누군가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청소년 노동인권모임 똑똑은 청소년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모임이다.

똑똑은 이번 공모사업 계획으로 노무사에게 노동관련 이야기도 듣고, 학습모임도 하고, 노동인권 관련 영화도 보고,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도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학습모임은 격주마다 모여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똑똑은 자주 모여 밥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수유일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움·청·카) 행사에 똑똑이 초대되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뜨거운 여름의 저녁이었다. 행사가 시작되는 6시가 되기도 전에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들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었다.

똑똑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했다. 이름 그대로 몸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을 보고 정답(직업)을 맞히는 것이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주 작은 동작에도 빠르게 직업을 맞혀서 깜짝 놀랐다. 다양한 상품, 게임, 또래 친구들, 춤과 음악 등을 즐기는 이 행사는 흥미와 재미 돋우고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줄만한 시간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기다려주는 동네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말이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끼를 펼칠 공간이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는 시간이다. 온전히 아이들만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너희를 지켜줄게’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전태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태일이’를 감상하고 노동 체험을 위한 햄버거 만들기 활동도 있었다. 영화 ‘태일이’를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끝없이 올라가는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한 학생은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안했을 것이다. 내가 몰랐던 한 사람 덕에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친구도 있었다.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하고 순간적이든 길게든 감동도 받기는 쉬운데, 무언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기는 아주 어렵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 사실, 그건 어른인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어진 햄버거 만들기 시간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였는데, 패티를 두 장 세 장 올린 햄버거를 몇 개 씩이나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정말 위대한 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에 경험자의 경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햄버거 알바 경험자들이 포장한 햄버거는 포장된 종이의 방향도 다르고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다. 맛은 두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똑똑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똑똑은 너무 좋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전혀 없었는데 지역 청소년들과 게임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서울이 데면데면한 곳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정다운 동네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내가 사는 동네,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고마운 공간, 그리고 함께 키우고 함께 커 나간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이 고마움과 함께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힘든 것 없이 잘 끝났네요. 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 덕분에입니다.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적은데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느낀 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관심은 아직 내 삶과 많이 연관이 없어서인지 멀게 느끼고 있었고 나도 노동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노동자인데 말이다. 똑똑 활동을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장난기 가득한 웃음과 즐거움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애들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희들을 향해 ‘똑똑’ 노크할 우리가 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마을특화활동지원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마을에 사람 냄새가 풀~풀~, 모두하우징의 향기가 퍼진다.

박미나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강북구

집수리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켜 일자리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장호
박민순
신근섭

탈무드에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다. 오늘은 이 명언처럼 인자한 미소 가득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모두하우징의 안장호님을 만났다.

박미나: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안장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3년차 모두하우징 집수리 봉사단입니다. 저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 집에 찾아가 집수리를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나: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 혹은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장호: 직장 퇴직하기 전부터 집수리에 관심이 있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 현장에 갔을 때에는 기술이 없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계속 다니다보니 기술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주 뵙는 분들과 함께 우리끼리 봉사활동 모임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모두하우징 집수리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미나: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안장호: 자재비가 많이 인상되어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게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늘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이 고쳐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미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장호: 지난번 중간모니터링 때 쓱싹팀을 만나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그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셰어하우스다 보니 아무래도 손 볼 곳이 많기는 했지만 은둔청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고 힘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주신 홀몸어르신들 집수리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잘 받을 수 없는 공간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 그 자체로도 봉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미나: 쓱싹 팀에게 물어보니 앞으로도 모두하우징에서 불러만 주신다면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안장호: 청년들하고 하는 활동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말 걸어주니 곧잘 대화에 참여도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 얄은 지식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나누어 줄 수 있어 가르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도배, 손잡이 교체, LED 전등 교체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했는데 알려주고 직접 실습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나: 마을 안에서 모두하우징은 어떤 모임이 되고 싶은가요?

안장호: 마을 사람들에게 생소한 집단이 아니라 주위에 늘 있는 이웃같고 친구같은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임이 주축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필요한 집수리 부분을 품앗이 해서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기량을 키워 이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원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마당’ 같은 모임이 되고 싶어요.

박미나: 모두하우징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안장호: 마을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내가 내어 줄 수 있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미나: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한가지 꼽아주세요

안장호: 집수리를 배우려면 사설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워야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다고 해도 학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현장에서 바로 접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수리는 숙달된 기술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봉사활동 할 곳을 찾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집수리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두하우징은 저처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을 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전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집들에 집수리를 해주실 수 없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자재비를 보태주시고 우리는 기술을 나누어주는 거죠.

박미나: 현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3년차이신데요.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안장호: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예산을 줄이고 우리끼리 회비를 내서라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문제가 없고 자재비가 걱정인데 공모사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집 가서 하루 일하고 거기서 번 돈에서 절반은 우리가 갖고, 절반은 봉사활동 자재비에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지속했었습니다. 누군가 후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런 절차로 활동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박미나: 3년 간 공모사업을 통해 모두하우징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장호: 공모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건어서 할 때보다 아무래도 더 많은 곳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요.

3년의 공모사업 기간 동안 많은 곳들을 다녔고 그곳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이 다른 집들을 연계해주셔서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배/장판/전기/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다니며 집수리를 하다 보니 동료들에게 배우는 기술이 많습니다. 저도 목공을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몰딩이랑 걸레받이 정도는 잘합니다.

박미나: 모두하우징 집수리 봉사단을 계속 하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장호: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한 마음, 배우는 기쁨, 심지어 일자리로 연결되어 제 노후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직업이 되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전 안장호님과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안장호님의 프로필 사진에 '세상에 받은 것만큼 보답하고 가자' 라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 인터뷰 내용과도 꼭 맞아 떨어지는 글귀에 안장호님의 진정성이 더 느껴졌다. 좋은 인연들이 더 많이 맞닿아서 이웃을 돕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자재비를, 시간은 많지만 금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좋은 어른으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 주시는 모두하우징 팀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마을특화활동지원

수유리 TV



마을소식과 주민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수유리TV

김혜신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강북구

마을 소식과 공동체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주민들에게 마을 정보를 쉽게 널리 알리고자합니다.

권윤경
배진희
조상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정보 교류가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 영상촬영을 통한 유튜브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전문 기술도 필요하고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라 그리 쉽지 않은 활동이기도 하다. 강북주민들이 모여 '수유리 TV'라는 이름으로 영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움에 취재를 시작했다.

김혜신: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와 모임구성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수유리TV: 수유리 TV는 수유 1동 도시재생생활성화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임구성원 각각 참여 시기는 다르지만,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며 마을기록가, 마을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동영상 촬영기법 등도 배우면서 알게 되어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촬영에 관심있어 배우다가 합류하게 되신 분도 있고요. 어르신에게 간단한 동영상 만들기 강좌를 할 정도의 실력들은 가진 분들입니다. 각각 영상,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힌 분들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잘 써보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수유리 TV가 탄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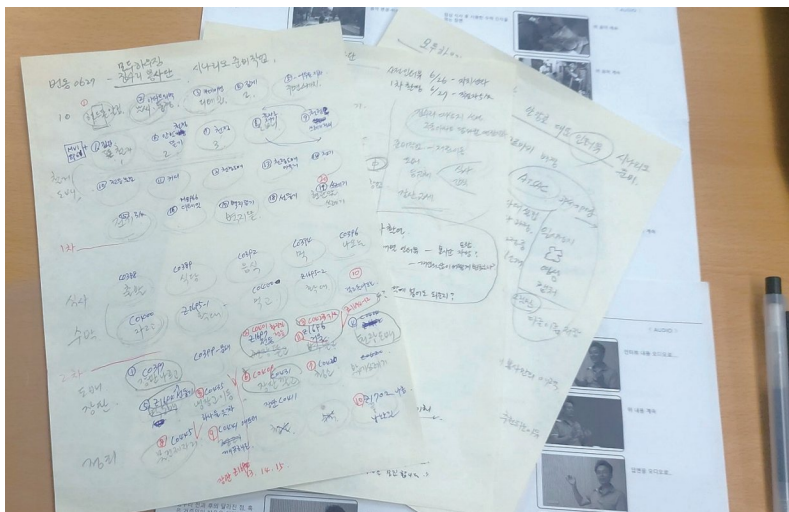
김혜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활동에 대해서도 나눠주세요.

수유리TV: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은 주민공동체와 주민이야기 기록을 주제로 총 4개의 영상작품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3명이 주로 외부활동을 하면서, 1-2개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1명이 총괄하며 기술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9월까지 자체 작품을 완성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10월경에 발표회를 열 예정이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을 시작으로 대상자 미팅, 촬영, 편집 등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혜신: 꽤 많은 시간과 품이 필요한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좋은 기억이나 원동력이 있나요?

수유리TV: 작품을 위해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모습, 친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촬영이다 보니 날씨와 외부 환경이 안 따라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촬영을 하다보면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현장에 가게 됩니다. 촬영도 하지만, 강의를 듣기도 하고 현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는 기회이기도 하죠. 열성을 다하는 모습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의외로 영상에 자기 모임, 자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즐거워 하셔서 그것도 재밌습니다. 물론, 초상권 등으로 불편해 하시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을 좋아해 주세요.



이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 모임구성원들도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임은 얼굴만 봐도 좋은 모임이에요. 기획과 기술 등에 대한 피드백도 잘 해 주니 기술도 쌓이고,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일단 다들 너무 열정적입니다.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죠. 돌아가는 재미로 회춘하고 있습니다.

김혜신: 수유리TV가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요.

수유리TV: 우리의 활동으로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 강북구가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유리TV가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요. 요즘 1인 유튜브들이 많은데 간단한 모바일 편집 등 쉬운 방법으로 동네에서 강의도 하며 개인의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으면 합니다. 마을주민들의 생동감있는 모습을 영상화하는 강북의 대표매체가 수유리TV였으면 좋겠고, 제가 이 모임이 자랑스럽듯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상상을 하면 행복합니다.

사실, 영상촬영이나 기록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핸드폰의 손자손녀 사진들을 쉽고 간단한 편집 하나로 영상화해 가족 간의 감동과 행복을 나눌 수 있거든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도 지키고,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나눠도 좋겠습니다. 하나씩 배운 것을 잘 나눠 마을과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수유리TV는 40-60대의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마을기록과 영상촬영'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로 마을살이를 하고 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복잡한 기술까지 차분히 배우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마을을 기록하고 알려준다. 기획을 위해 만든 자료를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될 때, 미처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취재를 마치며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부지런한 것들의 토대 위에 선한 영향력과 공공성으로 어느새 주민들 속에 스며들어 마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낀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마을특화활동지원

하늘채 : 하늘숲속 마을 활력소와 친해지기



하늘숲속 마을 활력소로 놀러오세요!

김세진 | 2023 마을지원활동가

🏠 활동하는 동네

💬 활동내용

👤 사업지기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부모, 어르신들 모두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오계순
김성순
안기철

번2동 마을 골목 안길에는 '하늘숲속 마을활력소'가 있습니다.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마을 속 공간에서 마을지기분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세진: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순: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활력소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대표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순이라고 합니다.

최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활력소 공간지기인 최현정입니다.

김세진: 올해 모임명이 '하늘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김성순: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 중 공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늘숲속 마을활력소는 2021년 11월 6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안타깝게도 공간이 생겼음에도 마을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마을활력소 공간 안에서 다양한 주민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모임명인 '하늘채'는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이름에서 따왔고요. 장기화되었던 코로나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요가와 캘리그라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 과정과 환경교육, 자녀와 함께 하는 쿠키 만들기, 그리고 마무리 잔치를 기획했었는데, 안타깝게도 7월부터 거의 10월까지 공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요가와 캘리그라피, 쿠키 만들기, 가족공예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마을공동체 사업 외에도 공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현정: 전 부터 모임을 진행하고 있던 뜨개질, 마크라메, 장구, 노래교실, 한국무용은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사분들이 마음을 내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회장님과 총무님을 선정하여 활동을 이어가는 등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성순: 그 외에도 월 2회 장금이밥상이라는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을활력소 옥상 텃밭을 활용하여 채소도 키워보고 있습니다.

김세진: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성순: 다들 이곳의 필요성을 너무 잘 느끼고 있고, 함께하는 활동이 즐겁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마을활력소가 세워지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다길래 참여를 했다가 사람들과 친분이 쌓이면서 봉사활동처럼 조금씩 조금씩 활력소 일에 발을 들이다보니, 어느덧 운영위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세진: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성순: 코로나 시기에는 공간이 생겨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에는 즐겁게 활동을 하다가 공간을 변경하는 공사가 잡히다보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마을잔치처럼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서로 토닥이는 자리가 무산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김세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성순: 아무래도 참가자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표정이죠. 마침 오늘도 작품 전시기간이어서 지금 이 공간에도 작품 전시회 중인데요,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작품의 질도 높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세진: 마을안에서 마을활력소가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나요?

김성순: 마을활력소를 생각하면 따뜻함이 있는 곳, 편안한 곳, 그래서 소문내고 싶은 곳이었으면 해요. 이곳을 오가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고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최현정: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진행해보았는데,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김세진: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김성순: 올해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좀 여유있게 진행해보고 싶어요.

최현정: 공간에서 다양한 강좌들을 열고 싶은데 강사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애를 먹었습니다. 강사분들의 정보가 어딘가에 아카이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야기 | 마을특화활동지원

한누리예술협회 : 모퉁이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만들어 가는 ‘한누리 예술협회’

김인제 | 2023 강북 마을기자단

🏠 활동하는 동네

💬 활동 내용

👤 사업지기

인수동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으로 주민들에게 지식습득이라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주민 체험형 골목축제마당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미애
김도현

김인제: 모임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유미애: 안녕하세요, 한누리예술협회입니다. ‘모퉁이’라는 사업으로 특화(공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활동을 소개드리면, 먼저 뜨거운 싱어즈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을 모집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배우는 날을 정해 10회차로 합창단을 만들어 분노, 우울 등 살아가며 위축된 마음들을 노래로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 정기적인 독서모임도 운영하는데요, 토론도 하고 서로 책도 추천해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나와You’ 축제는 저희 모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중에 하나



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무대에 설수 있는 축제예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자부합니다.

김인제: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을까요?

유미애: 21년 코로나로 힘든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연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게되었고 문화와 예술로 주민분들과 서로 소통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모임이 이어져 오고 있네요.

김인제: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유미애: 마을공동체 모임을 시작하면서는 코로나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조심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처음 해 보는 거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 있었어요. 현재는 3년차가 되었고,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점은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마을자치센터의 도움으로 바로바로 해결했어요.

김인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미애: '나와You' 축제당일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많이하고 우왕좌왕 하기도 했는데 주민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공연 30분 전에 비가 그쳐서 행사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인제: 마을 안에서 한누리는 어떤 모임이 되고 싶으신가요?

유미애: 옛날 시골마을에서 처럼 누구네 집 손가락이 몇 개더라 정도로 속속들이 서로의 사정을 알 정도는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주민들과 가족같은 분위기로 기쁨은 두배로, 슬픔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엮은 사람들
마을지원활동가



2023년 마을지원활동가 | 김세진, 김유진, 박미나, 박영진



마을지원활동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살이를 지원하고
연결하여 실제적인 활동을 이끄는 '현장 활동가'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의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사업 유형별 맞춤 컨설팅, 사업 운영 실무에 필요한 회계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그 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 자원을 연결하는 등 마을 활동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를 엮은 사람들


강북마을기자단


이다현



김인제



오영숙



김혜화



조상은



김혜신

2023년 강북 마을기자단 | 이다현, 김인제, 오영숙, 김혜화, 조상은, 김혜신



생생한 마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을자치 주민인식확산을 위해!
열심히 뛰는 '강북 마을기자단'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마을자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마을자치의 가치 및 활동에 대한 강북구 주민인식확산을 위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모임, 환경, 사람, 마을축제,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주제의 소재를 발굴하고 기사를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강북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걸음 더 마을을 들여다 보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 2023년 강북구마을공동체
- 2022년 강북구마을공동체

3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이웃만들기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Again 수유재 | 우이동 | 재미난학교(대안교육기관) 학부모 모임으로 영화감상, 마을밥상, 책모임 등의 활동으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함 |
| 다원모꼬지 | 번2동 |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과 소소한 즐거움과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생활의 활력을 갖고자 함 |
| 북한산 식물도감 | 인수동 | 마을의 식물생태자원을 알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서로에게 다정한 내적 지지자가 되고자 함 |
| 쓱쓱 | 삼양동 | 강북구 고립 청년들의 고립이 해소되고 이웃 간 교류의 시작이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
| 슬기로운 보드생활 | 인수동 | 보드게임 자격증을 취득한 엄마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소통하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보드게임을 나누며 엄마들도 성장하고자 함 |
| 선·이·모 | 삼양동 |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 어르신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자 함 |
| 이리랑 합창단 | 강북구 | 마을주민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웃과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주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즐거운 마을살이를 경험하게 함 |
| 우린 친한 시이개아니야 | 우이동 | 재미난학교(대안교육기관) 학부모들로 구성된 밴드 모임으로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공연을 열어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
| 인수탐험대 | 인수동 | 북한산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자료를 참고로 생태자원지도 그리기, 숲에서 하는 명상, 숲 지키기 활동 |
| 참새방앗간 | 삼양동 |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를 진행하고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며, 노년층이 많은 삼양동에 건강제조 등의 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을 넣고자 함 |



>> 공동체모임활성화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가·통·찬맘 키즈플라스 | 삼각산동 | 책모임, 문화체험, 농장체험 등의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로 마을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함 |
| 닷별 | 번3동 | 닷별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주고자 함 |
| 몸지클럽 | 번3동 |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 이웃과의 소통, 활동으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자 함 |
| 미인도 | 미아동 | 미아의 청년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미아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
| 숨통 트이다 | 삼각산동 |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환경에 관하여 삼각산동, 송천동 이웃들과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하고자 함 |
| 틈새 놀이교육 | 인수동 |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틈새 시간을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유익한 활동으로 채우고자 함 |
| 함께크는 엄마와 아이 | 번1동 | '하늘을 나는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모임을 하고 있고 텃밭가꾸기, 바자회, 지역인재강의, 소모임 지원 등의 활동 |

>> 마을특화활동지원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하늘채 | 번2동 |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부모, 어르신들 모두가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활동 |
| 한누리예술협회 | 인수동 | 문화예술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으로 주민들에게 지식습득이라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주민 체험형 골목축제마당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 기여 |
| 똑똑 | 강북구 |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취업 직전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인권 영화 상영 등을 통해 강북구의 청소년들이 어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지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 강북구 | 집수리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셀프 집수리 교육으로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켜 일자리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 수유리TV | 강북구 | 마을 소식과 공동체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주민들에게 마을 정보를 쉽게 널리 알림 |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이웃만들기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가·통·찬맘 더하기 | 삼각산동 | 육아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통해 소통하며 공동체 형성 |
| 꿈링턴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 송중동 |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들 모임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농촌체험 등을 통해 소통하며 함께 육아 |
| 발효장만들기 | 삼각산동 | 이웃과 함께 전통장을 만들면서 소통하며 전통 발효장을 배우고 알림 |
| 번동사랑 | 번동 | 이웃과 함께 지역 쓰레기 줍기, 유휴공간 정원 가꾸기, 건강체조 활동 등을 하면서 소통하며 건강한 마을 만들기 |
| 손꽃이 피는 마을 | 번동 | 코다(CODA) 아이들과 코다가 아닌 아이들이 함께 방문체험, 수어교육 등, 어울리며 소통하고 나와 다름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모임 |
| 용졸비 | 미아동 | 이웃과 함께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물키우기, 고체 생활용품(삼푸바, 비누바 등)을 만들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활동 |
| 육아빠 | 인수동 | 육아하는 아빠들간의 모임활동으로 육아강의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실외 놀이 활동으로 자녀와 유대감을 쌓음 |
| 장미북클럽 | 번2동 |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배우고 학습하며 성장하는 엄마 모임 |
| 틈새 놀이교육 | 인수동 | 틈새 돌봄 공백시간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 활동을 통해 소통과 친목 도모 |

>> 공동체모임활성화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통통 | 송천동 | 이웃과 함께 공기정화식물, 밑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나눔 활동을 하며 소통 |
| 수선화 | 삼각산동 |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음식과 놀이를 통해 체험하며, 지역 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방문 및 영화감상을 통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 |
|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 번1동 |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환경과 관련된 강좌 운영과 환경용품 만들기, 버룩시장을 통한 재활용 독려 활동, 전통먹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활동 |
| 핸드 메이드 사랑! | 번2동 | 다문화 가정과 이웃 주민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EM 비누, 세제 만들기, 삼베실로 수세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 |



>> 마을특화활동지원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놀멍쉬멍 | 수유1동 | 놀멍쉬멍 공간을 거점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놀이하며 소통. 환경소품만들기, 공예, 보드게임 등을 함께하며 소통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놀이 문화 발전을 활성화함 |
| 닷별 | 번3동 | 닷별 작은도서관 공간을 거점으로 환경교육, 신체운동활동, 예술을 주제로 한 소통활동하며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하는 공동체 활동 |
| 한누리예술협회 | 인수동 | 한누리예술협회 공간을 거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화로 들려주고 소통하는 공감활동, 춤과 노래 등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 그리고 축제마당을 열어 주민 모두가 즐기는 활동을 함 |
| 해당시향없음 | 인수동 | 공간을 거점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고 글방, 요리 등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 모두하우징 집수리봉사단 | 강북구 | 강북구 내에서 집수리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주거 취약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며,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
| 소나무협동마을 | 삼양동 | 삼양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문해교실, 마을밥상, 수제청 만들기 등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활동 운영 |
| 수유동 축제기획단 | 수유1동 | '어린이 연극반', '청소년 뮤지컬반', '청춘플러스' 등 세대별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 활동 |

>> 마을문제해결(제안형)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강북기행 | 강북구 |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위기강의, 자원순환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
| 강북행복한 소나무 | 삼양동 | 봉사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들을 1:1 매칭으로 서로 돌보는 활동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하여 마음안정에 도움 |

>> 마을문제해결(기획형)

| 모임명 | 활동지역 | 활동내용 |
|-------------------|------|---|
| 나의 감정일지 | 강북구 | 강북구청년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일기, 강의, 영화모임 등을 진행, 이를 통한 청년들의 우울감 극복에 도움 |
| 해피소드 (청년레츠) | 삼양동 | 삼양동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벤치디자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작 및 설치. 햇빛이 비추는 삼양동의 이미지를 벤치를 통해 알림 |
| 도전해 (이불밖도 안전해) | 강북구 | 강북구청년들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활동 진행 |

마을에서 만남의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강북마을자치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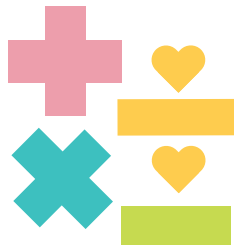
이메일 | gbmaja@naver.com

전화 | 02-994-8312

홈페이지 | www.gbmaja.org

디자인·제작 | 디자인파인

© 강북구마을자치센터



비밀번호
없이
강북

강북구  마을자치 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49, 1층 | 전화 02-994-8312 | 팩스 02-994-8313
www.gbmaja.org | 운영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